

# 2023년 현장 예배 참석률, 장년/교회학교 모두 크게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 만 3년 남짓!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성인 기준 개신교인 인구는 2022년 15%까지 떨어졌고,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는 늘어 2023년 2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 비율이 이처럼 감소한 가운데 최근 현장 예배 참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 이전 대비 장년 교인의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이 2023년 1월 기준 85% 수준까지 회복되고, 교회학교의 경우 20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직후 43%에서 71%까지 크게 상승한 점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제 5차 한국기독교 분석리포트)'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한 결과 중 하나이다. 한목협은 매 5년마다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넘버즈 182호>는 한목협이 이번에 발표한 주요 조사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 통계 자료들이 한국 개신교가 놓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일려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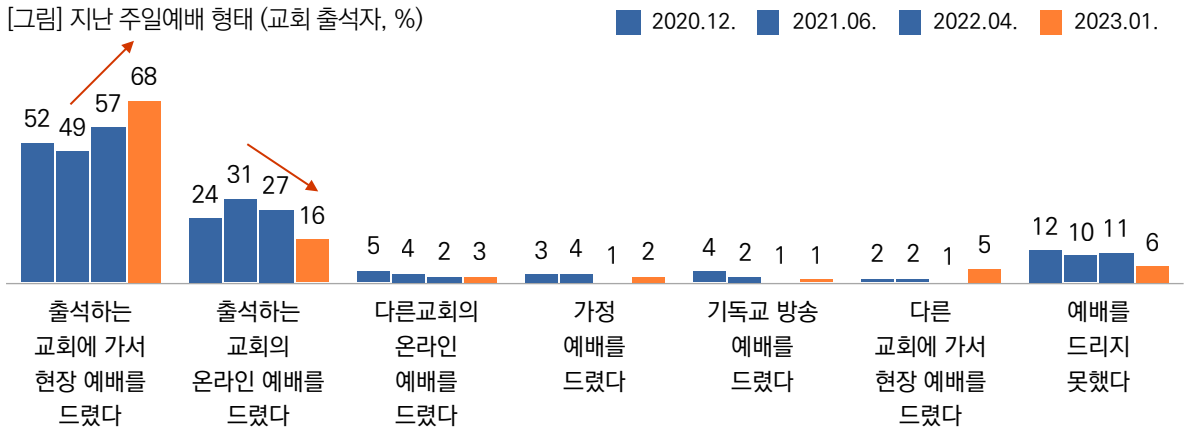
# 01

## [개신교인의 예배생활]

### 현장 예배 참석률 증가하고, 온라인 예배 참석률 떨어져!

- 교회 출석자들에게 지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물었더니 10명 중 7명 정도(68%)가 '출석 교회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직후 조사한 결과인 57% 대비 11%p나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출석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은 27%에서 16%로 11%p 감소하였다.
-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 비율은 2021년 6월 조사 시점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해제 및 완화로 현장 예배 복귀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난 주일예배 형태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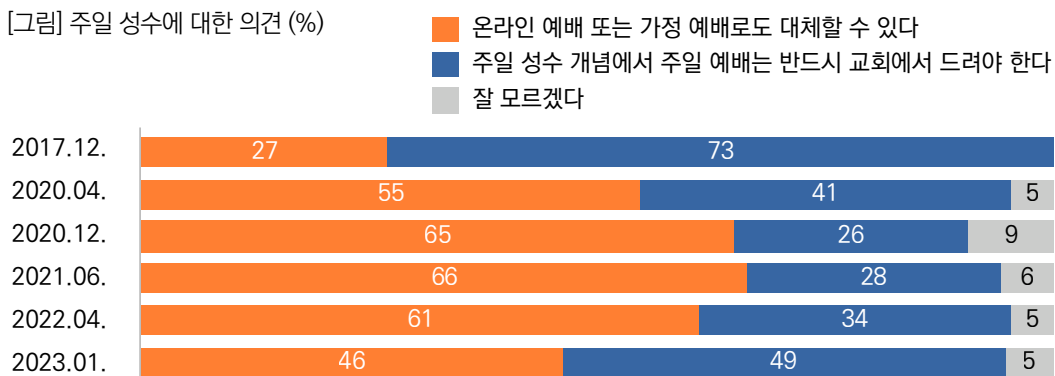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0.12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06.28)  
 2022.04 : 예장통합총회/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500명, 2022.04.15.~04.25)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 온라인/가정 예배의 주일예배 대체 인식,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져!

- 개신교인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코로나19가 극심한 2021년 66%까지 치솟았던 '온라인 예배/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23년 46%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 조사 때의 27% 보다 크게 높은 수치여서 그만큼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영향이 컸다.
- 반면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2020년 26%에서 2023년 4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



\*자료 출처 : 2017.12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9.22.~10.20)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04.06)  
 2020.12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06.28)  
 2022.04 : 예장통합총회/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500명, 2022.04.15.~04.25)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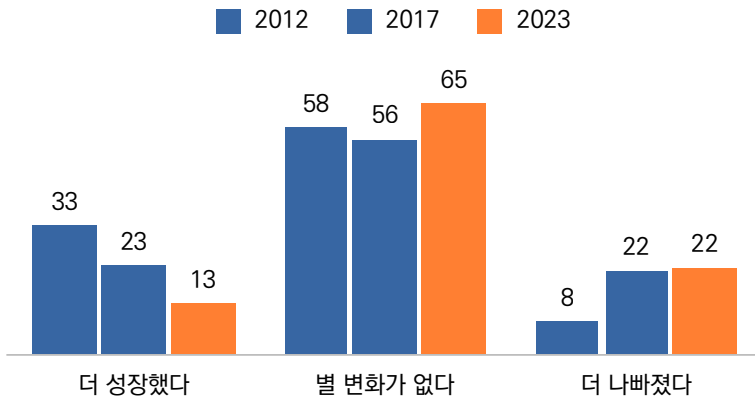
# 02

## [신앙 성장 추이]

### 개신교인의 신앙 성장, 코로나 시기에 더 감소해!

- ▶ 개신교인의 신앙 성장 정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더 성장했다’가 13%, ‘별 변화가 없다’ 65%, ‘더 나빠졌다’ 22%로 나타났는데, ‘더 성장했다’는 응답은 2017년 23%에서 2023년 13%까지 크게 감소한 반면 신앙 정체 비율은 10%p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성장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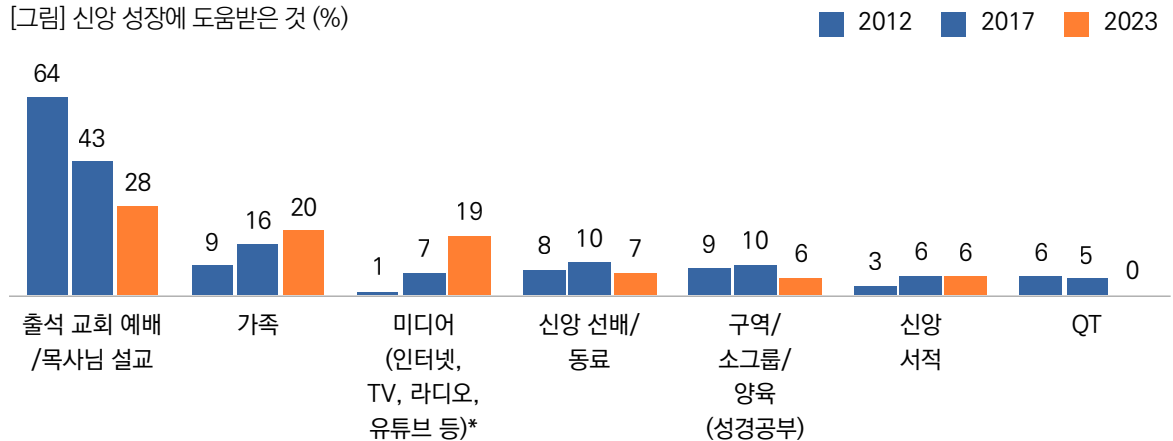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12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 개별 면접, 2012.10.08.~11.08)  
 2017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9.22.~10.20)  
 2023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 ‘출석교회 목사님 설교’ 줄고, ‘미디어’ 요인 가파르게 상승!

- ▶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출석교회 예배/목사님 설교’가 28%였고, 다음으로 ‘가족’ 20%, ‘미디어’ 19% 순이었다.
- ▶ ‘예배와 설교 영향력’은 2012년 64%에서 2023년 2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 반면, ‘미디어’와 ‘가족’ 요인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미디어’ 요인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2017년 7%→ 2023년 19%)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 (%)



\*자료 출처 : 2012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 개별 면접, 2012.10.08.~11.08)  
 2017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9.22.~10.20)  
 2023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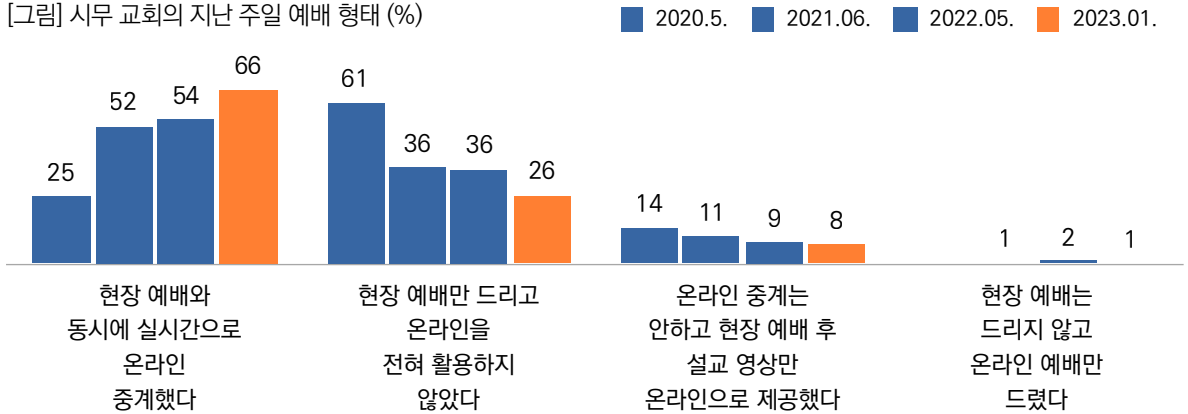
# 03

## [코로나 이후 목회 실태]

### 교회 3곳 중 2곳은 현장/온라인 예배 병행!

- ▶ 목회자(담임목사)에게 현재 시무 교회의 주일예배 형태를 묻은 결과, 3개 교회 중 2개 교회(66%)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4개 교회 중 1개 교회(26%)는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예배'가 점차 늘면서, 현장 예배만을 고집했던 전통적인 예배의 판도가 바뀐 모양새이다.

[그림] 시무 교회의 지난 주일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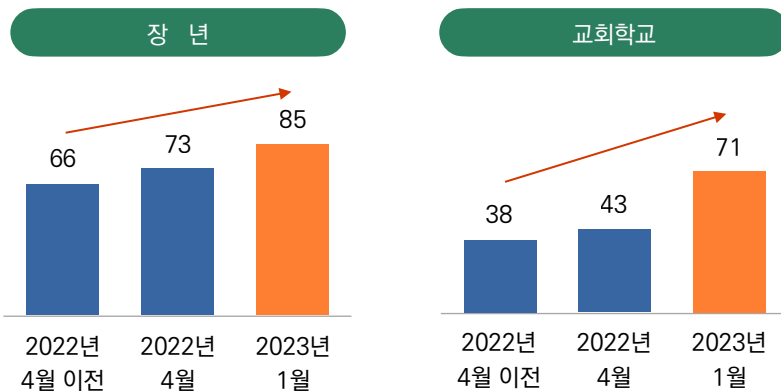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코로나19 조사 (통합 총회 소속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 조사, 2021.06.17.~06.30)  
 2022.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장년, 교회학교 모두 2022년 이후 현장 예배 참석률 크게 증가!

- ▶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을 100%로 봤을 때 현재 장년 교인 예배 참석률은 85%, 교회학교 학생들의 예배 참석률은 7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 장년과 교회학교 현장 예배 모두 코로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4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회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의 상승 폭이 매우 컸다(2022년 4월 43%→ 2023년 1월 71%).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장년/교회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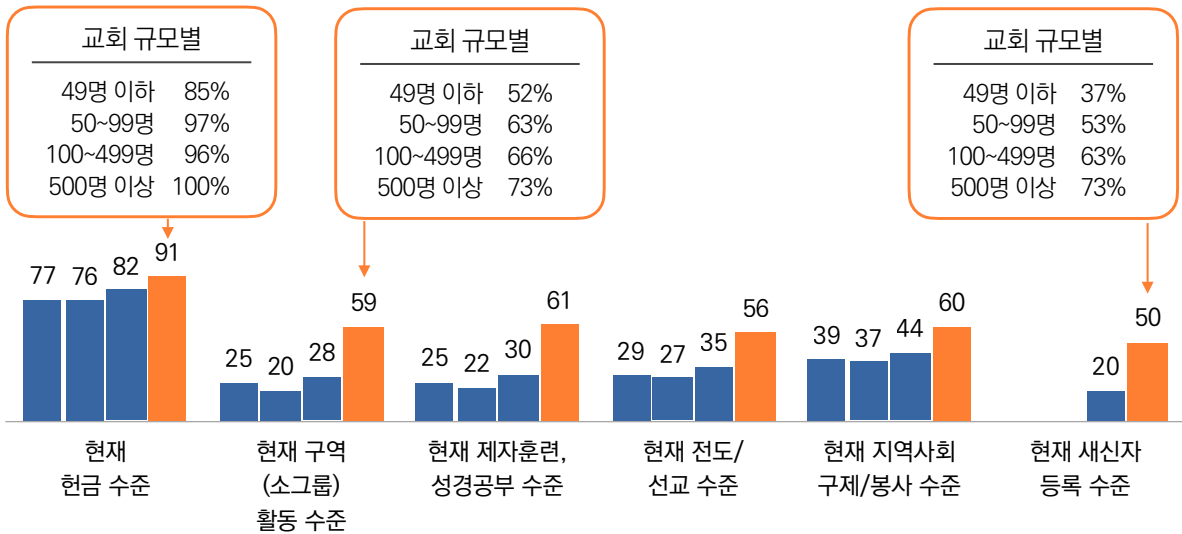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2 자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그러나 헌금을 제외한 교회 내 주요사역 회복도, 코로나 이전 대비 50~60%대에 그쳐!

- ▶ 코로나 이전(100% 기준) 대비 현재 사역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 헌금 수준 9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역 항목은 50~60% 정도 회복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헌금의 경우 49명 이하 소형 교회만 85% 수준이고 그 이상 교회들은 모두 90%를 넘었으며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100%를 상회했다.
- ▶ 특히 소그룹 활동과 새신자 등록 수준은 교회 규모별로 그 격차가 컸는데,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가 사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교회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역 정도 (%)

■ 2020.11. ■ 2021.06. ■ 2022.05. ■ 202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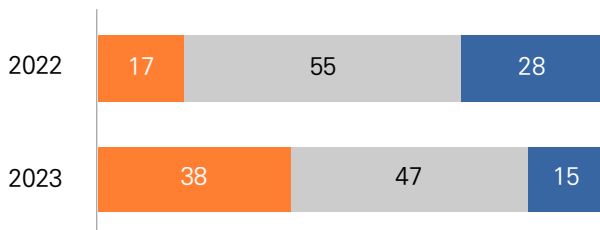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0.11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 조사, 2021.06.17.-06.30)  
 2022.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교회 예산, 2022년 대비 '증가했다' 비율 크게 높아져!

- ▶ 작년 대비 교회 예산에 대해 '증가했다' 38%로 2022년 조사 때보다 21%p나 높아졌다.
- ▶ 교회 규모가 클수록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의 경우 70%가 교회 예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소형교회와 큰 격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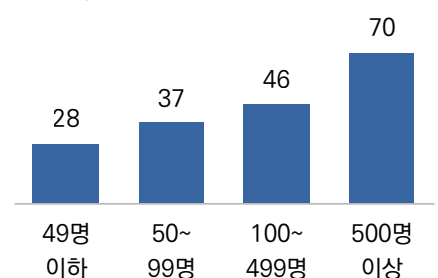
[그림] 작년 대비 교회 예산 정도 (%)

■ 증가했다 ■ 비슷하다 ■ 감소했다



[그림] 작년 대비 교회 예산 정도

(‘증가했다’ 응답비율, 교회 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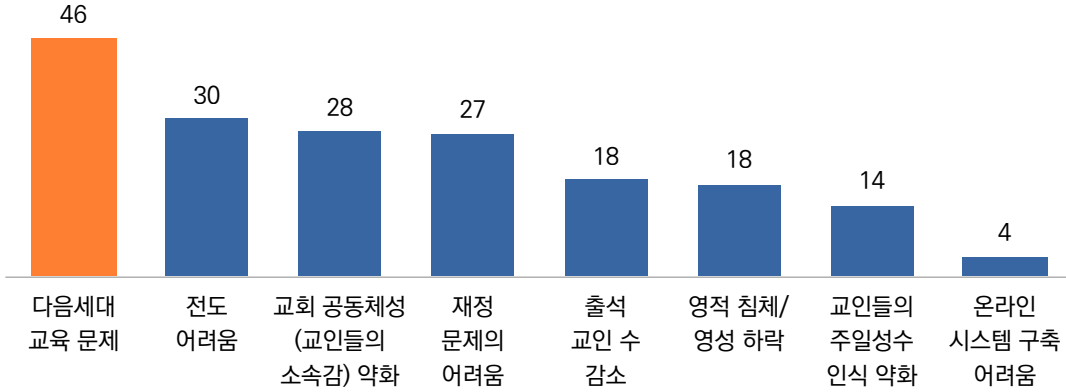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2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년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 ‘다음세대 교육 문제!’

- ▶ 목회자들이 목회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세대 교육 문제’가 46%로 가장 많았는데, 2위(전도 어려움)와 응답 격차가 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목회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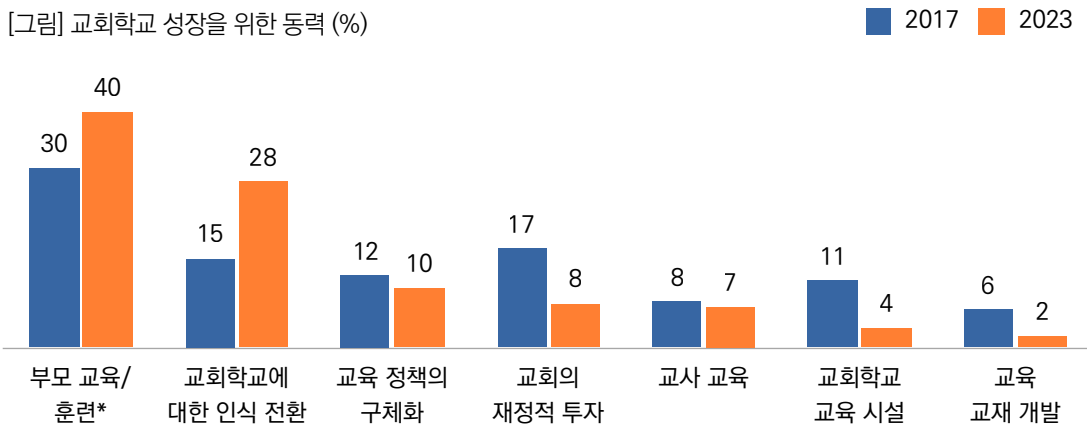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 ‘부모 교육’ 인식 크게 증가해!

- ▶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부모 교육 훈련’이 40%로 가장 많이 응답됐는데 이는 2017년 30% 대비 10%p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만큼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목회자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 점점 교회가 가족종교화되는 요즘\*\*, 부모의 신앙적 교육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성장 동력을 부모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 (%)



\*자료 출처: 2017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교회 개신교 담임 목회자 507명, 개별 면접과 온라인 조사 병행, 2017.10.10.~11.24)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청년트렌드 리포트'에 교회 출석자 가운데 최초 교회 출석 시기를 '태어나서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69%임을 근거로 언급함. (p.43 높아지는 모태 신앙 비율, 뚜렷한 가정 종교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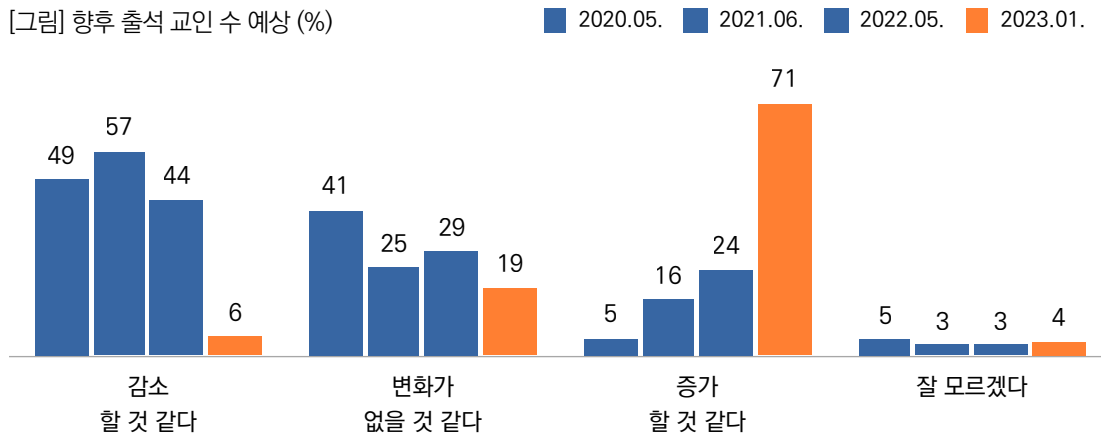
# 04

## [향후 목회 전망]

### 향후 출석 교인 증가할 것 71%로 작년 대비 3배 높아져!

- ▶ 목회자(담임목사)에게 향후 출석 교인 수에 대해 물은 결과, 71%가 '증가할 것 같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 ▶ 2021년 16%에서 2022년 24%, 2023년 71%로 '증가할 것 같다'는 의견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매우 크게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 이후 안정화를 거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



\*자료 출처 : 2020.05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통합 총회 소속 목회자 대상 코로나19 조사 (통합 총회 소속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담임목사 891명, 온라인 조사, 2021.06.17.~06.30)  
 2022.0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2023.01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 ◎ 향후 교인 수 증가 예상 교회 특징

- 1)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 2) 설교 피드백을 가족 이외 외부로부터 받음
- 3) 교육 중심 목회하는 교회
- 4) 코로나 이전 대비 소그룹 유지율 높음
- 5) 목회 코칭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 있음
- 6) 현재 주일예배, 온오프라인 병행함
- 7) 담임목사와 당회와의 관계 만족도 높음
- 8) 향후 온라인 사역 강화 계획 있음
- 9) 장기적인 목회 비전이 있음
- 10) 도시지역 교회

[표] 응답자 특성 별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 (%)

		증가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전체		71	현재 주일예배 형태	현장+온라인 (병행)	77
교회 규모별	49명 이하	64		현장 예배만	56
	50~99명	72		온라인 예배만	50
	100~499명	79			
	500명 이상	86			
지역크기	대도시	73	소그룹 유지율	30% 미만	58
	중소도시	77		30~49%	65
	읍·면	59		50~79%	71
				80% 이상	80
온라인사역 강화	계획 있음	76	설교 피드백	배우자/가족	81
	계획 없음	69		가족 이외	86
목회 코칭 경험	있음	77		받지 않음	67
	없음	66	본인의 목회강점	예배	71
장기적인 목회 비전	있음	76		전도	67
	없음	61		교육	82
당회와의 관계	만족	76		친교	60
	보통	59	봉사	47	
	불만족	53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담임목사 802명, 모바일 조사, 2023.01.31.-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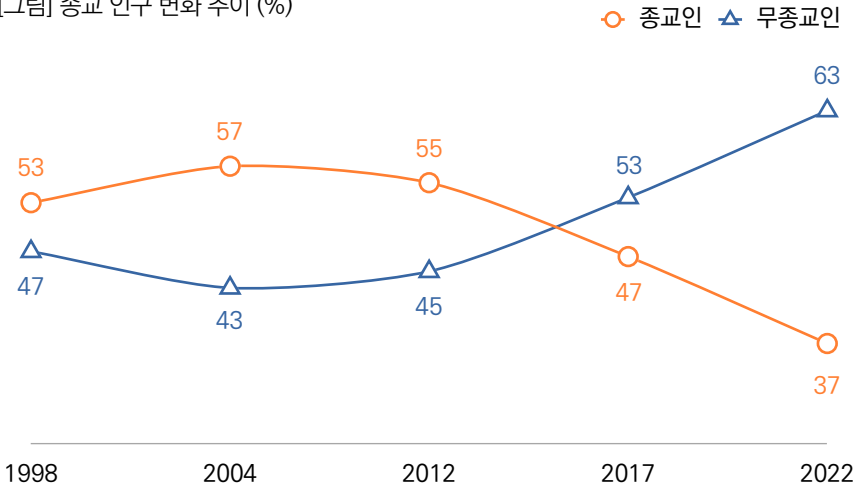
# 05

## [한국 종교 현황]

### 무종교인, 10년간 45% → 63%로 급속한 증가!

- ▶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만19세 이상) 종교인이 37%, 무종교인은 63%로 종교인 비율은 2012년부터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무종교인 인구 비율이 종교인 비율을 앞지르며 종교인 감소 추세는 점차 격차를 벌리며 202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 2012년 이후 10년간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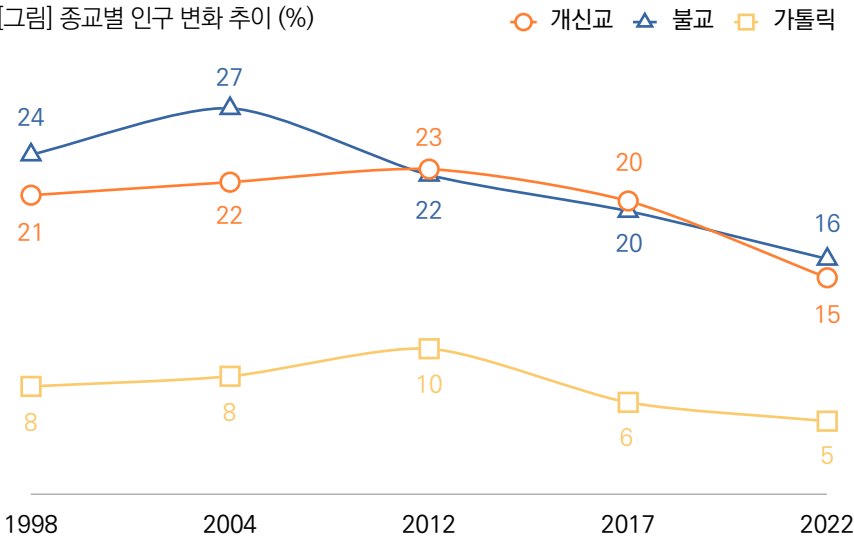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2022 종교분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 대면 면접조사, 2022.02~11)

### ◎ 개신교인, 2012년 22% → 2022년 15%까지 감소해!

- ▶ 종교 분포를 보면, 주요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천주교 모두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개신교 15%, 불교 16%, 가톨릭 5%로 나타났으며, 개신교인의 경우 2017년 20%에서 1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 조사는 전체 인구 대상이 아닌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유의해야 함)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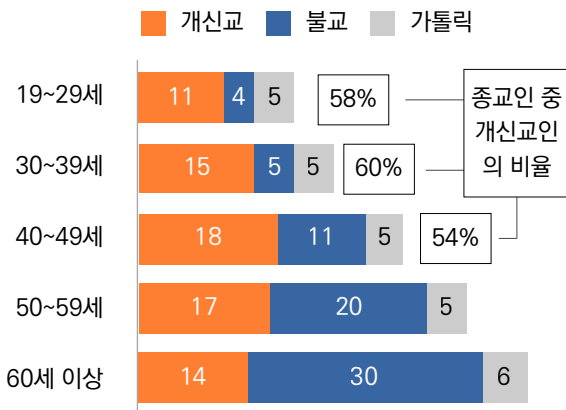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2022 종교분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 대면 면접조사, 202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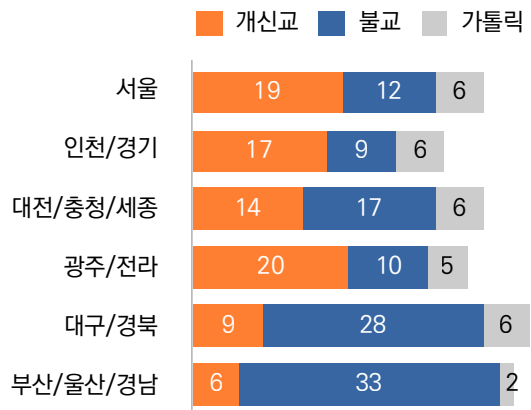
## ◎ 19~49세 종교인 중 개신교인의 비율 50% 이상

- ▶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개신교가 불교, 가톨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세대의 경우 가톨릭이 불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젊은층에서의 불교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 종교인만을 기준으로 개신교 점유율을 살펴보면, 19~29세가 58%, 30대 60%, 40대 54%로 40대 이하 층에서 개신교가 타종교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기독교 가치관이 뚜렷한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데이터이다.
-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서울/수도권 개신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전라' 지역(20%)이 '대구/경북'(9%), '부산/울산/경남'(6%)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2022년 연령별 종교 인구 분포\*\* (%)



[그림] 지역별 종교 인구 분포\*\*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2022 종교분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 대면 면접조사, 202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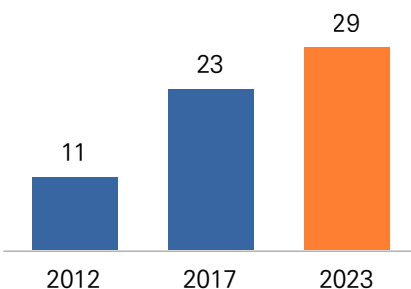
\*\*무종교인은 포함하지 않음

Note) 지역별 종교 분포에서 강원/제주는 표본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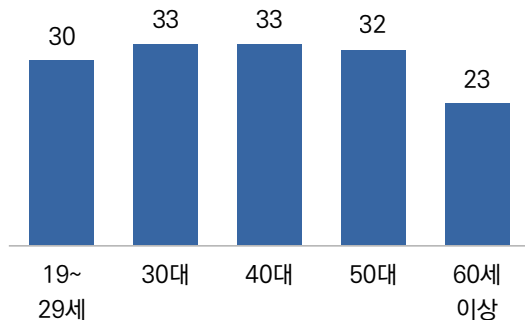
## ◎ 가나안 성도, 2012년 11% → 2023년 29%로 3배 가까이 증가해!

- ▶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개신교인 10명 중 3명 가량(29%)으로, 2012년 이후 11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가나안 성도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50대까지 30%대 초반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60대 이후 2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 비율 (%)



[그림] 연령별 가나안 성도 비율 (2023년, %)



\*자료 출처 : 2012년: 한국기독교교육회자협의회, 201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 개별 면접, 2012.10.08.~11.08)

2017년: 한국기독교교육회자협의회,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09.22.~10.20)

2023년: 한국기독교교육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 ◎ 2023년 한국 개신교인 771만 명 추정!

- ▶ 2023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를 5,143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으로 봤을 때 이 중 개신교인을 15%로 보면 개신교인은 약 771만 명(교회 출석자 545만 명, 가나안 성도 226만 명)으로 추정된다.
- ▶ 특히 가나안 성도가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점이 주목된다.

[표] 2023년 개신교인 추정 인구

	개신교인 구성비*	총 인구 기준 비율	인구수
교회출석자	71%	11%	545만 명
가나안성도	29%	4%	226만 명
계	100%	15%**	771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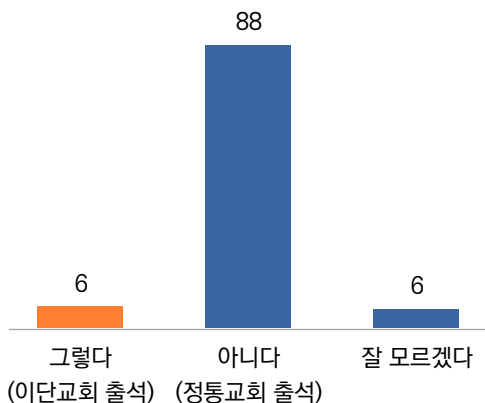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자료 출처 : 한국갤럽, 2022 종교포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182명, 대면 면접조사, 2022.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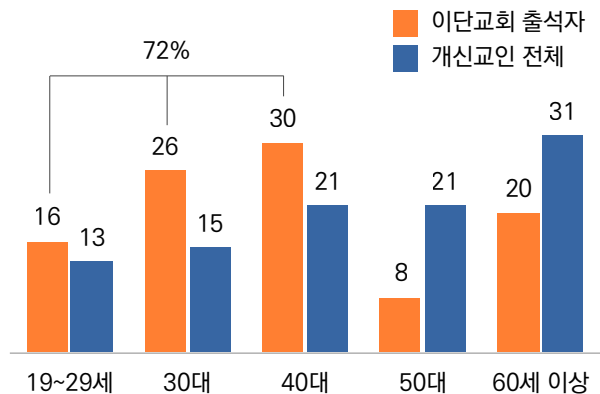
## ◎ 개신교인 중 이단 신자, 최소 6%에서 최대 12%!

- ▶ 개신교인들에게 ‘출석하는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교회인지’를 물은 결과, 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였다. 개신교 내 이단 비율을 최소 6%에서 최대 12%로 추정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신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교회 출석자 545만 명 중 이단 신자의 수는 최소 34만 명 ~ 최대 66만 명으로 추정된다.
- ▶ 이단교회 출석자의 연령별 비율은 개신교인에 비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는데, 40대 이하의 총 비율은 72%로 개신교인의 49%보다 23%p나 높았다.

[그림] 이단 교회 출석여부 (교회 출석자, %)



[그림] 이단 신자 vs 개신교인 연령별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2020~2022년의 3년 동안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 의식과 행태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서 과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들 정도였다.<sup>1)</sup> 새로운 예배 채널로서 온라인 예배가 부각되면서 현장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성도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교회 예배는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현장 예배 참석률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조사에서 49%의 '현장 예배 참석률'을 최저점으로 2022년 4월에는 57%로 조금 늘었다가 이번 조사(2023년 1월)에서는 68%로 11%p나 늘었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린 비율은 2022년 4월의 27%보다 11%p나 줄어서 16%가 되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비율도 2022년 4월 11%에서 2023년 1월에 6%로 절반 가까이 현장 예배 증가와 함께 주일 성수의 개념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4월에 34%였는데 이번 2023년 1월 조사에서는 49%로 15%p나 증가했다. 반면에 '주일 예배는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비율은 2022년 4월의 61%에서 15%p나 줄어서 46%가 되었다. 현장 예배 회복 추세에 대해 목회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목회자의 71%는 앞으로도 교회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5월의 24%에서 무려 3배나 늘어난 결과이다.

과거 대비 신앙 성장 여부를 질문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는 '더 성장했다'가 13%, '더 나빠졌다'가 22%, '별 변화없다'가 65%였다. 2012년과 2017년에 '더 성장했다'가 33%와 23%였고 '더 나빠졌다'가 각각 8%, 22%, '별 변화없다'가 58%와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앙 수준이 정체 내지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면 2012년과

2017년 대비 '출석교회 예배/목사님 설교'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미디어'의 비중이 증가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첫째로 현장 예배 참석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우리 말에 '쇠는 달궜을 때 두들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쇠는 딱딱해서 웬만해서는 휘거나 꺾을 수 없지만 뜨겁게 달궜을 때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출석 교인이 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쇠가 달궜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현장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현장 예배 참석을 적극 권할 적기가 지금이다. 이를 위한 목회자의 노력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꼭 예배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므로 온라인으로 소그룹, 성경공부, 심방 등을 한다면 평일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T.P.O.(Time, Place, Occasion)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이 시점에서 각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위기 의식과 기회 의식을 동시에 갖고 능동적으로 목회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코로나19 동안 신앙 의식과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넘버즈 36호, 42호, 52호, 69호, 92호, 108호, 109호, 146호, 147호, 148호, 151호, 168호, 코로나19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63호 101호, 102호, 143호 볼 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61호, 82호 볼 것.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다룬 81호, 126호, 178호 볼 것.